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2014년 2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지혜와 바른 행동

(지혜 1, 25-30)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4장 ‘주님은 나의 목자’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어둠을 밝히는 빛이신 주님, 저희에게 당신의 지혜를 비추어 주소서.
-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지혜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지혜의 보고 안에는 현명한 격언이 있으나
죄인에게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역겨움이다.
지혜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베푸시리라.

정녕 주님을 경외함에 불신감을 갖지 말고

두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부리지 말고 네 입술을 조심하여라.

너 자신을 들어 높이지 마라. 떨어질까 두렵다.

네 영혼에게 불명예를 자초하지 마라.

주님께서 네 비밀을 폭로하시어

회중 한가운데에서 너를 내던져 버리시리라.

네가 주님께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았고

네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 최근에 온유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날 지식의 축적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식은 기술의 발전을 가져와서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리함은 인류를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하는가요? 사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스트레스 속에 행복지수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식은 놀라운 기술 발전을 가져왔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맛보게 될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부러 맛 집을 찾아 가기도 합니다. 좋은 요리사는 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도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은 음식을 장만해서 먹는 사람이 행복하도록 합니다. 같은 음식 재료라도 요리사가 각 재료의 특성을 잘 알아서 조리 순서를 정하고 불의 세기를 조절해서 각 재료들을 잘 어우러지게 할 때 맛깔난 음식이 되게 합니다. 우리네 삶이라는 요리도 지식이라는 재료들이 지혜라는 요리사를 만나서 잘 어우러질 때 행복이라는 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이 음식의 재료라면 지혜는 그 재료들을 잘 어우러지게 하는 요리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지혜서의 말씀에서 지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26절).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 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돌아 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릇된 길이란 ‘주님을 경외함에 불신감을 갖는 것’, ‘두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부리는 것’, ‘입술(말)을 조심하지 않는 것’, ‘자신을 들어 높이는 것’, ‘자신의 영혼에 불명예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더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하지 않는 것은 재료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조리할 지혜가 메달라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좋은 요리사는 데려오지 않고 재료 탓만 한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결국 제대로 된 요리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요리사를 데려 온다면 소박한 재료로도 맛깔난 음식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맛깔나고 행복한 삶이되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가진 것을 맛깔나게 조리 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초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합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마침성가로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믿나이다’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미사의 독서와 복음의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독서방식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전례개혁에 따른 것입니다. 주일 미사의 독서는 3년마다, 평일 미사는 2년 주기로 반복되는데요. 연중 주일은 ‘가’ 해에는 마태오, ‘나’ 해에는 마르코, ‘다’ 해에는 루카복음이 낭독되며 이중 마르코 복음의 분량이 짧은 관계로 ‘나’ 해의 연중 17-21주일에는 요한복음으로 보충합니다. 그리고 모든 특수시기에는 요한복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일의 첫째 독서는 구약 중에서 둘째 독서는 사도들의 편지와 사도행전과 묵시록에서 뽑고 셋째 독서는 복음에서 선택하는데요. 평일 미사의 첫 독서는 신·구약을 망라하지만 두 번째 독서는 항상 복음서입니다.

대축일과 주일마다 세 독서가 봉독되는 것은 신자들에게 성경의 주요부분을 들려주고 싶은 교회의 배려라는 걸 꼭 알려 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평일 독서는 주일과 축일의 보충독서이므로 주일과 축일에 선택하지 않은 부분 가운데 연속성에 근거하여 발췌하며 이는 독서내용과 복음내용의 연관성이나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독서와 복음은 서로 통하고 연계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느님 말씀의 ‘현존’임을 체험하게 하지요.

독서말씀은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점에 유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만날 것입니다.

말씀의 큰 은총을 놓치지 마세요!

돌밭에 핀 꽃

석전성당 2구역3반장
박 령 숙 비비안나

찬미예수님, 저희 석전성당은 1991년 설립되어 “파티마의 성모”님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로 사이에 자리 잡은 소박하고 아담한 성당입니다.

저희 본당은 고령화와 신자 감소로 인해 ‘쉬는 교우 증가’라는 큰 숙제를 안고 본당 사목회를 비롯하여 꾸리아, 레지오, 구역분과 모두 새 가족, 우리 가족 찾기에 힘을 모으고 있으며,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데 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본당이지만 본당출신 신부님(강병모 파비아노)도 배출하고 신학생도 있으며, 2년 후엔 25주년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합니다.

저희 본당은 4구역 11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저희 2구역3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반은 위의 성당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서 보듯이 줄어드는 신자 수로 인해 소공동체 모임을 이어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을 저희 머리에 얹게 하시어 주님이 제게 주신 소명에 순종하며 반원들 서로 합심하여 사랑으로 따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덕성당에서 55세대를 석전본당으로 전출하여 이루어진 저희 소공동체모임은 18세대가 모여 합심하여 서로의 축일과 집안의 대·소사까지도 서로 챙겨주며, 오손도손 활발히 친교를

이루며 모범반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원들은 본당 내 여러 단체의 활동에서도 모두가 열정을 다하여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말씀과 나눔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감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소공동체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 석전성당 2구역3반 반원들 〉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